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3월 뉴스레터 vol. 74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 비우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임종 돌봄, 나비랑 채비랑 같이 풀어볼까?

장례후기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메멘토모리 하늘에 만든 가족 별자리



## 존엄하게 죽을 권리



지난주 화요일(3월 5일) 저녁 9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어떤 제목을 스치듯 보고 손을 멈췄다. PD수첩 〈나의 죽음에 관하여〉.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죽음, 노인, 웰다잉 이런 단어를 보면 관심이 간다. 이날 방송 주제는 ‘조력 사망’이었다. 조력 사망?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을 마치는 것?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날 방송에서는 조력 사망에 대한 윤리적, 법적 담론을 심층 조명했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한국인은 확인된 것만 최소 12명에 이른다. 이들은 왜 스위스로 가야만 했을까. 제작진은 그들의 흔적을 쫓았다. 제작진은 스위스를 방문했고 어렵게 A 조력사망단체 회장을 만나 조력 사망의 과정과 행해지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조력 사망을 선택한 한국인 고 허모 씨의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지 10여 년 만에 스위스에서 만났다는 아들 허씨는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다고 한다.

“아들아, 나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하려는 것이다.”

폐암 말기였던 아버지에게, 온전한 정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것. 아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고통에서 해방된다며 후련해 보였다고 한다.

2023년 말, 이명식 씨와 그의 딸은 조력 사망을 허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주에서 새 삶을 계획했던 이 씨는 상세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뇌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와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최대 용량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극단적인 생각에 떠밀리던 이 씨는 스위스의 조력사망단체를 알게 되면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지만, 딸의 도움 없이는 스위스로 갈 수 없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야겠다고 하면 나를 찌르는 것밖에 없거든. 이거를 가족이 처리해야 되나 그런 거. 그걸 내가 남겨줘야 되겠냐?”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잠자다 가는 것’이 대부분의 소망이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이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이 예기치 않은 병이나 사고로 병원 침상에서 죽음을 기다린다.

원인불명의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에 걸린 사람, 뇌동맥류 수술 후 후유증으로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 뇌출혈로 쓰러진 뒤 움직이지 못하고 8년째 누워만 있는 사람, 그들이 말하는 존엄한 죽음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다. 남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못 하는 상황, 그렇게 연명하며 맞이할 죽음은 결코 그들이 바라는 ‘존엄한’ 죽음은 아니었다.

방송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주제로 한 영화 ‘소풍’의 주연 배우 김영옥, 나문희 씨가 ‘등장한다. 배우 나문희 씨는 오랜 시간 투병 끝에 작년 겨울 사별한 남편의 이야기를 전하며, ‘저도 나중에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그 치료가 내 존엄성까지 해친다면 연명 치료를 포기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당하는 죽음보단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을 원한다는 두 배우.

올해 1월로 육십을 맞이한 나는 지난 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2월에 등록증을 카드를 발급받았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큰 화두로 등장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가, 제도 시행 약 5년 만인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년 전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이다. 해당 법안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스위스 조력사망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생을 마감한 외국인은 3,400여 명이 넘으며, 한국인 회원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일까. 조력 사망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PD수첩] ‘나의 죽음에 관하여’편 보러가기

<https://youtu.be/FcgD79tYHFA?feature=shared>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 임종 돌봄, 나비랑 채비랑 같이 풀어볼까?



웰다잉 작은모임

# 나비랑

살아가며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삶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임종과정을 서로 돌보며, 원하는 방식의 죽음과 장례에 관해 학습하고 함께 준비하는 웰다잉 모임입니다.

마지막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자존감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하세요~

**모임기간** 3월6일(수) 저녁7시, 첫모임 / 이후 매월 첫째주 수요일

**모임대상** 웰다잉(좋은 죽음)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임내용**

- \*죽음과 상식 경험 나눔
- \*감동적인 영화 감상
- \*세계의 흥미롭고 다양한 장례문화 탐색
- \*수준 있는 죽음인문학 학습
- \*아름다운 추모식으로 작은 장례식 구성

**모임장소** 늘푸른돌봄센터 공유공간돌봄 2층 (용마산로8길 65, 중곡4동)

**주관** 광진주민연대 웰다잉모임

**문의** 주민연대 사무국 02) 446 9390  
모임담당 010-2936-8792 주민연대공동대표 010-5389-6962

23년 11월부터 4번의 웰다잉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해온 광진주민연대에서 24년에 들어와서 기획조직 모임을 2차례 가지고 난 후 3월 6일에 늘푸른돌봄센터 중랑에서 웰다잉 소모임 <나비랑>의 첫 모임을 가졌다.

모두 13명이 함께 자리하니 공간이 가득 찼다. 돌봄에 종사하는 이들은 돌봄 대상자의 임종을 현장에서 경험할 때의 어려움을, 대부분 각자의 상실에 관한 경험과 아픔을 나누고, 죽음에 관련한 제도적인 과제까지 나누었다.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죽음에 관한 깊은 주제로 진입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과 과제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 자리에는 광진주민연대 김미진, 박용수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꺼내놓는 죽음과 돌봄에 관한 주제들이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가야 할 통합돌봄의 마지막 관문인 임종 문제의 굵직한 줄기들을 미리 보여주는 듯했다.

첫날이라 각자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들어보고, <엔딩노트. 2011>라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 3분짜리 편집본을 보고 죽음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다.

모인 시간이 짧지 않았지,만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다.

4월 3일 2차 나비랑 모임 때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 하였다. 24년 한 해 동안 매달 모임이다. 깊은 모색과 논의와 활동의 시간을 거친 뒤 25년에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한다.

<나비랑&채비>가 죽음에 관한 깊고 담대한 논의의 기회를 만들고, 외롭지 않고 평안한 임종 돌봄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중물이 되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진행해 주셨어요.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셨구요.  
발인 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산에까지 동행해주  
셔서 도움을 주셨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조회와 팀장님께 감사함이  
절절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신수정 조합원

한지윤 선생님께서 비가오는 중에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현숙 조합원

장례접수부터 장례식이 마무리 될 때까지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모친을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  
시는 것을 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식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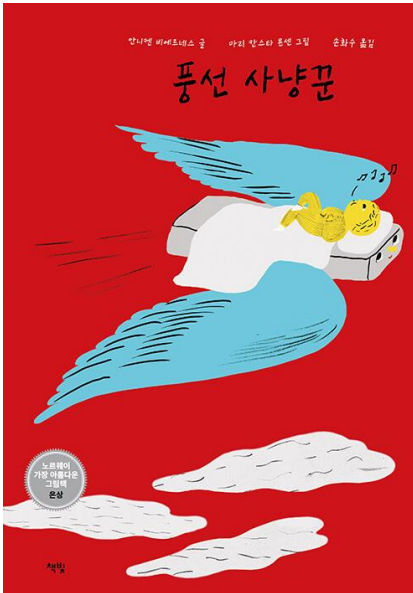
다른 상조에 비해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장  
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조성택 조합원

## 하늘에 만든 가족 별자리

### 풍선 사냥꾼

안니켄 비에르네스 | 책빛



이야기의 주인공은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년입니다. 소년은 밤을 좋아합니다. 밤이 되면 하얀 침대가 어둠에 숨겨지고,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소년이 좋아하는 밤하늘을 꾸미고, 소년에게 천사와 별, 풍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스한 별빛이 소년을 비추고, 소년은 천사처럼 풍선처럼 하늘로 여행을 떠납니다.

풍선 사냥꾼은 ‘어린이의 죽음’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고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책을 넘긴다면 아픈 아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이의 시선은 유연하고 평온합니다.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족들의 사랑은 가슴 속에 따스한 여운을 남깁니다.

어린이 책에서 드물게 어린이의 죽음을 다룬 그림책입니다. 어린이가 죽음의 주체가 되지만, 아픈 상황이나 슬픈 감정은 강조되지 않으며, 죽음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고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소년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들의 응원은 소년을 꿈꾸게 하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니켄 비에르네스 작가는 아홉 살 때 심장병을 앓는 동생을 잃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며, 심각한 병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영혼이 가장 힘이 세다.’라고 응원하는 목소리에는 세상 누구보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힘을 가진 강한 존재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서울조합] 정기총회



지난 3월 7일, 서울조합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사업보고와 평가,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관한 안건으로 치러졌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죽음을 대면하고 치르는 애도에 관한 이야기인 다큐멘터리 영상 ‘죽음에게 말을 걸다’를 관람했습니다. 많은 대의원이 참석해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었습니다.



## 2024년 2월

강순석 조합원 부친상  
유종오 조합원 빙모상  
이광석 조합원 모친상

백찬홍 조합원 빙부상  
박성한 조합원 모친상  
함영수 조합원 모친상

구연수 조합원 숙부상  
윤희석 조합원 부친상  
장성우 조합원 부친상

## 2024년 1월

최영인 조합원 모친상  
성주현 조합원 본인상  
최재희 조합원 사돈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조탁준 조합원 모친상  
맹계현 조합원 시모상

임덕진 조합원 모친상  
신금희 조합원 부친상  
김용호 조합원 모친상  
김상영 조합원 빙부상  
남궁철 조합원 모친상  
백숙희 조합원 부친상

이수종 조합원 지인상  
백선기 조합원 지인상  
김정국 조합원 형제상  
김병호 조합원 모친상  
고석배 조합원 부친상  
정수경 조합원 배우자상

## 2023년 12월

김나인 조합원 지인상  
손백호 조합원 모친상  
홍순덕 조합원 모친상  
박현숙 조합원 모친상  
강명구 조합원 모친상  
이한기 조합원 모친상

김중국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양미애 조합원 시아주버니상  
조영자 조합원 시모상  
김창언 조합원 자녀상

구은경 조합원 모친상  
이한련 조합원 모친상  
신수정 조합원 시모상  
정태성 조합원 부친상  
이인재 조합원 모친상  
조현정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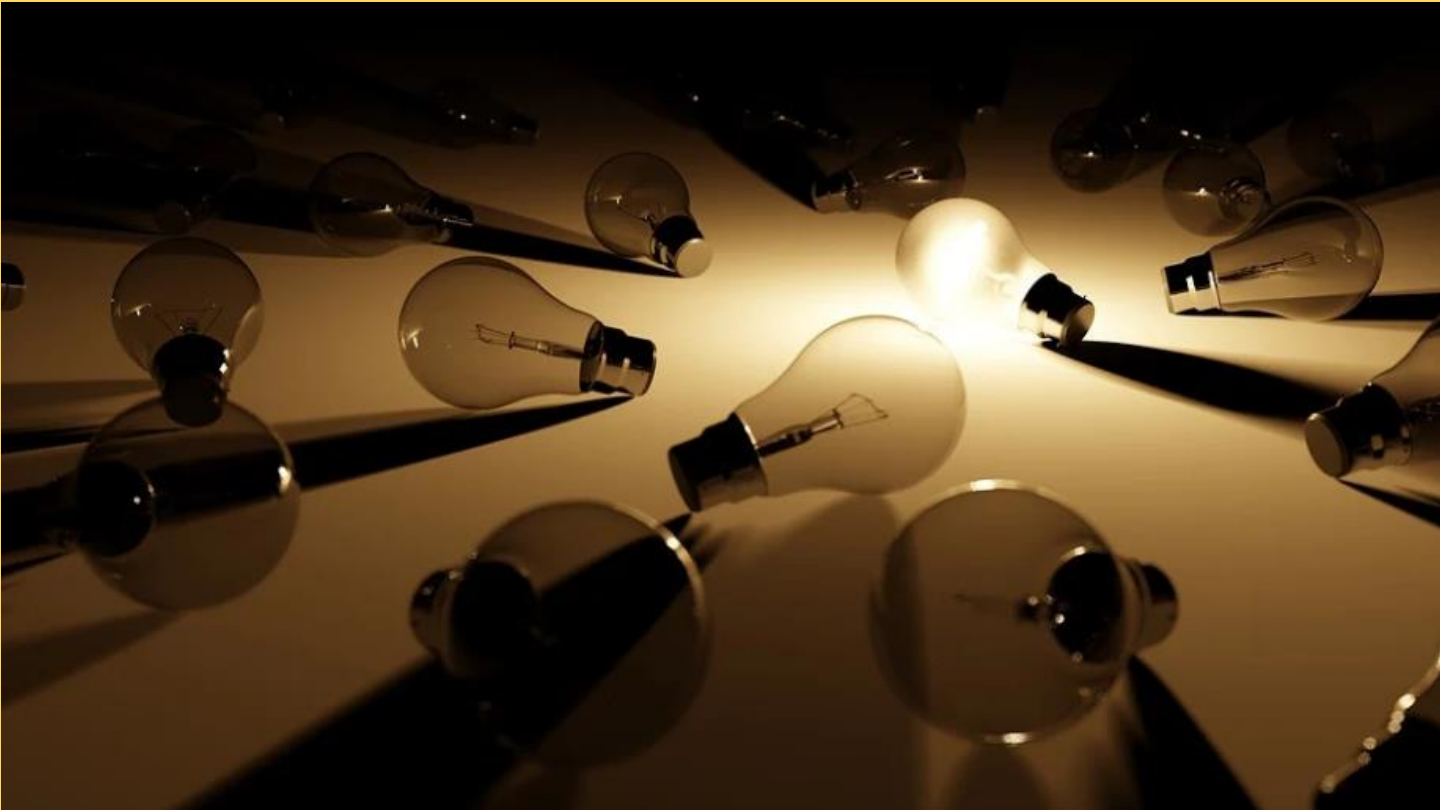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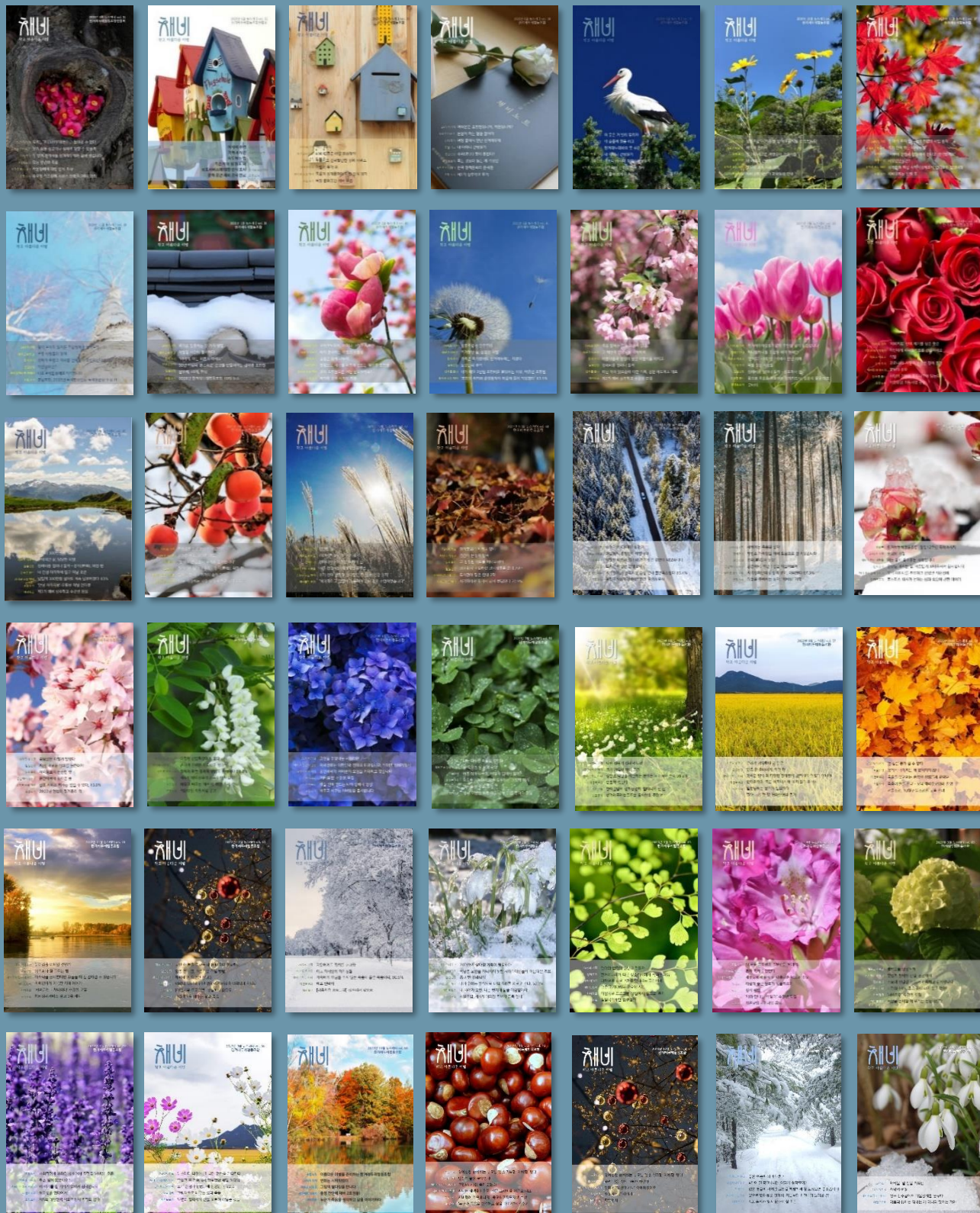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